

KBS 홍성덕·최지영 PD, 10년간 100편의 한국문학을 영상화해 드라마로 정리

#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대중문화와 출판은 '하나의 문화'

KBS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의 근현대 문학작품 100편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왕의 남자> <괴물> 등 100만 관객 동원이라는 대박 속에서 한국문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영상화하는 문학사적 의의와 한국문학을 드라마로 정리한다는 방송사적 의의를 찬찬히 쌓아가고 있다. 2005년도에 8편, 2006년에 6편, 올해는 8편을 제작 방영할 계획이다. 특히 TV문학관에서 방영됐던 박범신 소설의 원작 <외등>이 2006년 제31회 불가리아 골든체스트 TV페스티벌에서 브론즈 체스트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위상을 한층 높은 계기를 마련했다. 1968년에 설립된 골든체스트 페스티벌은 동유럽지역의 권위있는 상으로 지난해에는 불가리아의 문화중심인 프로비드브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25개국 72개 작품이 출품됐다. TV문학관 100선 프로젝트 팀장인 홍성덕 PD와 <외등>을 제작해 브론즈 체스트상을 수상한 최지영 PD를 만나 대중문화 속에서 드라마와 책의 연관성, 드라마의 원류인 책에 대한 의미, 향후 드라마와 책의 관계 설정에 대한 방안을 들어봤다.



<외등>원작 박범신의 한 장면



<외등>으로 브론즈 체스트상을 수상한 최지영 PD

작 이기호), <달의 재단>(원작 심윤경)을 방송했고, 올해에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원작 조세희), <카스테라>(원작 박민규), <랩스터를 먹는 시간>(원작 방현석) 등을 드라마로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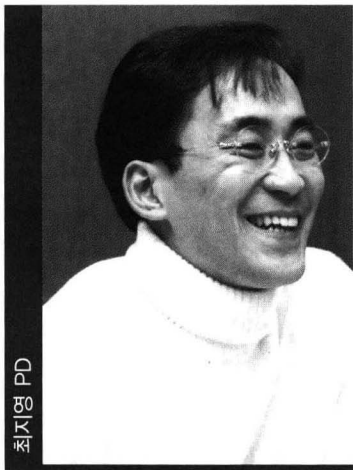
TV문학관은 문학과 드라마의 장르를

TV문학관은 1980년 12월 18일 첫방송 된 <을화>(乙火)를 시작으로 순수문학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는 드라마이다. KBS가 10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TV문학관 100선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았거나 예술성 측면에서 공인받는 문학작품들, 우리의 문화와 지나간 고유의 발자취들을 담은 향토문예물,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간됐던 문학작품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시청들에게 접근하겠다는 기획의도를 갖고 있다. 2005년도에는 <소나기>(원작 황순원), <내가 살았던 집>(원작 은희경), <역마>(원작 김동리), <외등>(원작 박범신), <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원작 김경욱),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원작 김탁환), <새야새야>(원작 은희경), <메밀꽃 필 무렵>(원작 이효석), 2006년도에는 <깃발>(원작 하성란), <노래여! 마지막 노래여!>(원작 유익서), <등신불>(원작 김동리), <나쁜소설>(원

결합한다는 목적 외에도 고화질 영상을 담을 수 있는 HD화면으로 영상미를 높여 영화화로 접근해가는 시도를 했다. 일반 단막극에 비해 세 배 이상 달하는 제작비를 투자해서 문학이 펼치는 상상의 공간을 흡인력 있는 영상예술로 제작해 시청자들은 미려한 미장센을 감상할 수 있다.

홍성덕 PD는 문학을 재료로 삼는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를 순수성과 상업성으로 봤다. “TV드라마는 영화보다 순수한 면이 있어요. 영화는 상업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지만 TV드라마는 영화보다는 상업성 측면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문학을 영상으로 옮기는 장르 중에서 좋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영 PD는 TV문학관이 가진 순수예술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영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작을 각색하는 경우 상업적 고려 때문에 문학적 본령이나 예술적 의



최지영 PD

미가 비틀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드라마는 문학적 본령을 훼손하지 않게 접근하려고 해요.”

드라마 PD들은 TV 문학관뿐만 아니라 드라마 기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착안하는 부분이 책이다. 드라마 작가의 창작대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례도 있지

만, 신간으로 나오는 문학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드라마의 소재를 찾는다. 문제는 드라마의 원류가 되는 문학이 디테일한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내러티브가 약해있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사건이 중심이다. 따라서 서사보다 묘사가 강한 문학작품은 영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른다. 최지영 PD에 의하면 드라마와 소설의 교류가 빈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범신 작가의 《물의 나라》 《불의 나라》는 미니시리즈로 제작될 정도로 서사가 강한 문학입니다. 근간에는 드라마 PD들이 인터넷 소설이나 만화에 시선이 주목했던 게 사실이에요. 다행히 최근에 등장하는 문학이 내러티브로 흘러가는 것 같아 반갑더군요. 서사가 강하면 드라마와 문학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봅니다.”

문학이 주는 섬세한 상상력은 영상이 완전하게 따라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문학 텍스트를 접한 독자들의 머릿속에 펼쳐지는 상상력의 깊이를 카메라 앵글이 따라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최지영 PD는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를 예로 들었다. “<소나기>는 모든 드라마PD가 하고 싶어 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작품이 주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느끼는 게 제각각인데 그 순수함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한계지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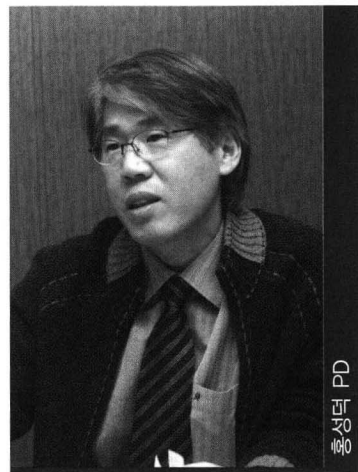
따라서 문학을 차용해 만든 드라마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문학적이어야 하고, 영상미도 훌륭해야 하고, 경쟁력(시청률)도 있어야 하고, 드라마의 역할 중 하나인 오락적 기능인 재미도 갖춰줘야 한다는 점을 볼 때 문학이 가져야 할 본령과 드라마가 가져야 할 본령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최지영 PD는 이런 점에서 “드라마는 소설의 삽화를 그려주는 역할이 아니고, 더구나 난독증 환자를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라는 미디어가 아니다”라고 설득한다. 즉 문학이 던져주는 예술, 상상력의 공간을 또 다른 장르의 예술가가 만든 창작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작품이지만 하나는 회화로, 다른 하나는 조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소설이라는 활자매체에서 영감을 얻어 상상력을 매개로

또 다른 예술을 창작해 드라마로 보여주기 때문에 드라마가 낫느냐, 소설 원작이 낫느냐는 우문은 더 이상 쓸 때 없는 소모전에 불과하다.

홍성덕 PD는 문학에서 보여주는 100년의 시공간을 드라마로 옮기면서 난관에 봉착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이 100살을 살아야 하는데 시청자들은 100살 먹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드라마에서는 평균 30대에서 40대 사이를 농축해서 보여줘야 하고, 주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소, 상황, 내러티브가 변형이 될 수밖에



홍성덕 PD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작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을 한 결과, 소설가는 소설에 대한 원작자라면, 각색자는 영상의 원작자라고 생각한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학이 드라마가 만나는 지점은 문학관, 특집 등 단막극이 위주였지만, 향후에는 미니시리즈나 수목드라마에서 소화를 하지는 드라마 PD들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최지영 PD는 “문학관에서 벗어나 드라마 전반에 문학 원작들이 콘텐츠 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방송과 출판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원작에 러브 콜을 보낼 게 아니라 출판계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컨버전스, 즉 기술적인 망이 아니라 콘텐츠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원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콘텐츠의 기초는 책이라는 게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지영 PD가 말하는 대목은 대중문화 속에서 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일러주고 있다. “동아시아나 유럽 등 국제상 심사에 나가보면 드라마들이 진중한 호소력이 갖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순수문학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문화는 굉장히 허약해집니다. 그 기초체력은 책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중문화는 인문학과 순수문학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응용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역으로 출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대중문화와 책, 넓게는 출판계가 협업 및 동업 작업을 해야 한다는 문화의 동반자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이젠 출판, 영화, 연극을 따로 보지 않아요. ‘문화’라는 하나의 눈으로 통틀어 봅니다.”